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

연수개요

- 기 간 : 2016. 11. 11.(금) ~ 11. 15.(화)<4박 5일>
- 방문지 : 대만(타이페이)
- 연수자 : 허유인 의원
- 연수목적
 -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안피아드 대회 및 제26회 대만국제건기대회 참가를 통해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회장단과 2021년 제17회 IVV 올림피아드 대회의 순천 유치 활동
 - AVV(아시아시민스포츠연맹) 총회 및 IVV(국제시민스포츠연맹) 회의 참석
 - 타이페이시청 및 시의회 방문(부시장 및 의원 면담)
 - 대만 관두자연공원 견학



순 천 시 의 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

I. 연수개요

○ 방문지 : 대만(타이페이시)

○ 목 적

- 초청받은 제3회 아시아피아드 국제 걷기대회 참석해(한국 24명참가)
대한민국과 순천시,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 홍보 및 참석 요청
- AVV(아시아시민스포츠연맹) 총회에 참석해 IVV(세계시민스포츠연맹), AVV 임원들에게 순천시와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 홍보
- 2021년 IVV 유치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우리시에 치른 1회 대회와 제3회 대회인 대만국제걷기대회를 비교
- 대만 타이페이시청을 방문해 습지나 문화관계자들과 미팅을 통해 순천시,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문화를 홍보하고 협력 방안 모색
- 순천만습지와 우호를 맺은 대만 관두공원 견학을 통한 선진 공원이거나 습지 관리, 운영 방안 모색

○ 기 간 : 2016. 11. 11.(금) ~ 11. 15.(화)

○ 연수자 : 1명

소속	성명	성별	직위	비고
순천시의회 (의원)	허유인	남	의원	연수총괄, 기관방문 관리, 문화·관광 정책 분야, 연수 기록 및 일정 관리

○ 제3회 아시아피아드 초청에 관한 공문(한국체육진흥회)



International Volksports Verband
한국시민스포츠연맹

수 신 : 순천시의회회장

(참조) : 사무국장

제 목 : 제3회 아시아피아드 대회 초청에 관한 건

1. 귀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본회는 걷기운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회 아시아피아드대회를 2012년 순천시에서 개최하였고, 매년 4월말 순천만 ECO 국제걷기대회를 순천시의 후원으로 6회 개최, 걷기운동(스포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 본회에서는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아피아드대회 및 제26회 대만국제걷기대회에 아래의 일정으로 참가하면서, 국제시민스포츠연맹(IW) 회장단과 2021년 제17회 IW 올림픽피아드대회 순천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귀 의회 허유인의원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개요

1. 행사명 : 제3회 아시아피아드대회 및 제26회 대만국제걷기대회
2. 일시 : 2016년 11월 11일(금) ~ 15일(화)
3. 장소 : 대만 타이베이시
4. 주최 : 대만산악연맹, 대만WALKING협회
5. 한국 참가인원 : 24명(한국체육진흥회 선상규회장 외)

▶ 협조요청사항

1. 초청 :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본회 자문위원)
2. 초청사유 : 제3회 아시아피아드대회 및 IW회장단 회의 참가

II. 연수일정: 11월 11일(금) - 15일(화)

일시	시간	행사내용	비고
11월 11일(금)	07:00	인천공항 A카운터 집결	
	09:10	인천공항 출발(KE691)	대한항공
	11:00	타오위엔 국제공항 도착	
	14:00 - 16:00	AVV(아시아시민스포츠연맹) 총회 참가	
	17:00 - 18:00	퍼레이드	
	18:30 - 20:30	국제 친선의 밤 참가	
	20:30	호텔 이동 후 자유시간	
11월 12일(토)	06:30	호텔조식 후 대회장 이동	
	07:00	30KM 출발	
	08:00	20KM 출발	전용버스
	09:00	10KM 출발	
	16:00 - 18:00	완보 후 대만시내 견학	전용버스
	18:00 - 20:00	IVV(국제시민스포츠연맹)회장단 회의	
	20:00	호텔 이동 후 자유시간	
11월 13일(일)	06:30	호텔 조식 후 대회장 이동	
	07:00	30KM 출발	
	08:00	20KM 출발	전용버스
	09:00	10KM 출발	
	16:00 - 18:00	완보 후 대만시내 견학	전용버스
	18:30 - 20:30	폐막식 참가	
11월 14일(월)	10:00 - 11:00	타이페이시청 방문(국장 면담)	
	13:00 - 18:00	대만 관두자연공원 탐방	
	18:30	석식 후 자유시간	
11월 15일(화)	09:00	호텔조식 후 공항 이동	
	10:20	타오위엔 공항 도착	
	12:10	타오위안 국제공항 출발(KE692)	대한항공
	15:35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III. 연수국 및 연수 도시 개요

○ 대만 현황

1. 언어: 중국어(만다린), 타이완어, 객가어
2. 면적: 35,980km² 세계139위 (CIA 기준)
3. 인구: 약 23,508,428명 세계55위 (2017.07. est. CIA 기준)
4. GDP: 5.714억\$ 세계22위 (2017 IMF 기준)
5. 기후: 북부지역은 아열대기후, 남부지역은 열대기후
6.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7. 역사: 3세기 중엽 중국의 삼국시대 때 심형(沈瑩)이 저술한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에서는 타이완을 이주(夷州)로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문헌 기록으로 거의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주라는 명칭을 두고 타이완 섬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견도 있다. 7세기 초 수(隋)나라 때부터 한족(漢族)이 타이완을 정찰정략(偵察征略) 시도하였으며, 타이완을 유구(流求)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유구는 현재의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구분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元)은 1360년 평후섬[澎湖島]에 처음으로 순검사(巡檢司)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였지만 타이완은 관할에 두지 않았다. 명대(明代)에 이르자 해상무역과 해적활동을 하는 한족의 정착이 늘어났고 동시에 동방무역에 나선 서구의 열강도 타이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명나라는 타이완을 행정 관할에 두지 않았고 원주민과 한족,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타이완을 통치하는 기구나 세력은 없었다.

1590년 동방무역을 위해 이곳 해역으로 진출한 포르투갈인이 타

이완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르모사(Formosa)라고 명명하였다. 1616년 일본인들이 대만을 점령하려다 풍랑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후 네덜란드가 타이완 남부에 정착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동방무역을 위한 것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앞서 정착한 한족을 누르고, 이곳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였다. 1624년 안핑[安平:臺南市]에 지란디아 성(Zeelandia castle)을 구축하였다. 타이완이 중국과 일본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자 에스파냐도 1626년 지룽[基隆] 지방의 서랴오섬[社寮島]에 산살바도르성을 쌓았다. 다시 3년 후에는 단수이항[淡水港]에 산토도밍고 성(Santo domingo castle)을 각각 축조하고 타이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1642년에 에스파냐를 타이완에서 격퇴하고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661년 명나라가 청에 패망하자 유신 정성공(鄭成功)이 부하를 이끌고 타이난[臺南]에 상륙하여 지란디아성을 점령해서 네덜란드인을 항복시키고 타이완을 항청복명(抗清復明)의 기지로 삼았다. 1662년 정성공이 죽고 이후 아들 정경(鄭經)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독립된 국가로서 체제와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673년 청나라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서 대륙으로 진격하여 푸젠성 일대를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1680년 하문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다시 퇴각하였다. 정경이 중국 대륙 진출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사망하자 대만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분으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1683년 6월 청(淸)이 타이완으로 진격하자 3번째 정(鄭)씨 왕인 정극상이 청나라에서 요구한 변발을 받아들이고 항복하였다. 이로써 정(鄭)씨의 타이완 지배는 불과 3대, 22년으로 끝났다. 다음해인

1684년 청은 타이완을 푸젠성에 예속시키고 타이난에 타이완부(府)를 설치하였다.

청나라는 1884년 프랑스와 청불전쟁(淸佛戰爭)이 일어나자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듬해 타이완을 하나의 성(省)으로 격상시키고 순무(巡撫)를 파견했다. 그러나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타이완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타이완 주민들은 타이완 순무이던 탕징쑹(唐景崧, 1841~1903)을 총통으로 추대하고 타이완민주국(臺灣民主國)을 선포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다. 5개월 동안 각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무력항쟁을 벌였으나 패하면서 타이완민주국은 붕괴되었다. 타이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1945년 10월 25일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새로 이주해온外省人(外省人)과 원주민인本省人(本省人)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어 1947년 2월 28일에는 '2·28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1949년에는 중국공산당과의 내전(內戰)에 패배한 국민당(國民黨)의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난징(南京)에 있던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를 타이완의 타이베이(臺北) 시로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 정치: 타이완은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의 5권분립제를 택하고 있다. 1947년 1월 1일 헌법이 제정되고 2005년 6월 7일 국민대회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타이완은 입헌민주제 공화국이다. 총통이 국가를 대

표하고 행정부의 수장이다.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5권 분립체제 상 총통이 이를 관할한다. 국민당 1당지배정치를 펴온 타이완 정부는 1949년 이래 계속 실시된 계엄령을 1987년 7월 해제하였으며, 1988년 1월 13일 총통 장징궈[蔣經國]가 사망한 후 부총통 리덩후이[李登輝]가 총통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1월에는 복수정당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야당세력이 예상외의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집권 국민당에 타격을 주었다.

1991년에는 타이완 수비사령부를 해체하고 진먼섬 계엄을 종식하였으며, 1992년에는 사상경찰제 및 타이완 경비사령부를 폐지하였다. 1993년 11월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 1994년 7월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던 총통직선제 개헌안 승인을 거쳐, 1996년 3월 총통 리덩후이가 최초의 직선총통이자 제9대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 3월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의 후보 천수이볜[陳水扁]이 쟁전을 겪고 총통으로 선출되어 50년 이상 계속되어온 국민당 체제가 중단되었다. 2001년 12월 1일 제5기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진당이 제1당으로 도약하였으며 그후 2004년 3월 20일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볜 총통이 50.12%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때 야당은 3월 19일의 천수이볜 총통 피격 사건으로 국가안전체제가 발동되어 군인과 경찰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고법원에서 모두 기각 패소하였다.

2004년 12월 11일 실시된 제6대 입법위원 선거에서 야당(국민당, 신민당, 신당)이 입법원내 과반수(113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民進黨 89석, 國民黨 79석, 親民黨 34석, 台聯 12석, 新黨 1석, 기타 10석)되고 이에 2005년 6월 7일 국민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위원수 1/2 감축, 소선거구제 채택,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실시, 국민회의 해산 등 헌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었다. 국민대회는 동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 천수이벤 총통의 측근 비리혐의로 국민당, 친민당 주도 하에 타이완 정치 사상 최초로 총통파면안이 입법원에 제출되었으나 2006년 6월 27일 부결되었다. 2008년 1월 12일 제7대 입법위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당 81석, 민진당 27석, 기타 5석 등이다. 2008년 3월 마잉주[馬英九]가 제12대 총통에 당선되었고,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이 최초의 여성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9. 경제: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을 보면 농업 1.7%, 광공업 25%, 서비스업 73.3%이다. 경제는 제조업·무역·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발달하였으며, 자철석·황철석·구리·금 등이 소량으로 채굴되고 장석·석회석·활석·백운석·고령토 등이 다량으로 생산된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이 생산되기는 하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료와 광물을 수입한다. 중공업은 1965년 수출가공지대로 건설된 가오슝[高雄]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공업은 타이베이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장비·의류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약품, 정밀기계, 전자기기 분야의 첨단산업도 발달하였다.

과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여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타이완은 195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2001년 3분기 -4.2%)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침체

를 겪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홍콩, 일본, 독일, 네덜란드,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전기제품, 방직품, 금속동제품, 수입품은 기계·전기제품, 화학품, 금속동제품 등이다. 2001년 11월에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컴퓨터, 정보통신 등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OEM 수출을 통해 세계 IT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중국(홍콩 포함)이 미국을 제치고 타이완의 제1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타이완 기업들의 대중 투자 확대 및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타이완 내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500억불 이상의 중국 대륙에의 지속적 투자 유출로 인해 대(對)중국 경제의존도 증대가 우려된다. 국제 경기 변동에 취약하여 실업과 금융 문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10. 사회: 타이완의 주민은 17세기에 광둥성, 복건성 등지에서 이주해 온 본성인(本城人)과 1949년 장제스를 따라온 외성인(外城人)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은 중앙통신의 통신사가 있다. 신문은 《연합보》, 《연합만보》, 《중국시보》, 《중시만보》, 《자립조보》, 《자립만보》, 《자유시보》 등이 있다. 영자신문으로는 《차이나 뉴스》, 《차이나포스트》 등이 있다. TV방송국은 중국전시, 중화전시대, 타이완전시, 홍콩에 본부를 둔 위성사인 TVBS 등 12국이 있고(1997), 라디오방송국은 AM방송국 218국, FM방송국 333국, 단파방송국 50국이 있다(1999).

인구증가율은 0.81%, 출생률은 1,000명당 14.42명, 사망률은 5.91

명, 영아사망률은 7.06명이다. 평균수명은 76.35세로 남자는 73.62세, 여자는 79.32세이다. 기대수명은 76.5세(2007년)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6~15세의 어린이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문맹률은 5%이다.

11. 문화: 타이완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륙문화와 태평양의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문화 유산이 다양하다. 중국의 한(漢)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한때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도 했으며 서유럽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중첩되어 있다.

경극(京劇)은 중국 무대예술 중 가장 잘 알려진 연극 분야이지만 타이완의 오페라는 경극의 지역적 변형으로 표준어 대신에 푸젠 방언을 사용한다. 중국대륙의 창초우 지역 민요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일부 레퍼토리는 남부 푸젠성 민요와 타이완 원주민 민요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통소의 역할, 배우들의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이 타이완식 경극과 베이징식 경극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는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 중의 하나로서, 푸젠성 남부 방언으로 공연되는 꼭두각시놀음이 공연되는데, 능란한 손놀림, 목소리, 흥내, 재미있는 사설들이 볼만한 장면들을 연출한다. 경극과 마찬가지로 이는 북과 징의 반주로 시작되는데 오늘날에는 중국식 악기와 서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깔린다. 손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놀음은 과거의 종교적 의미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풍성한 농산물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보통 여름에 무대

에 올려지며 마리오넷 꼭두각시놀음은 신의 가호를 기원하거나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공연한다.

타이완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물과 20세기 초의 일본식 건축물 및 근대 서구식 건축물 등 어떤 형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양식의 건축물들이 많다. 타이난이나 루캉곽 같은 타이완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의 건축은 유럽의 고딕식 사원이나 일본의 정원양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기본구조가 전형적인 U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또는 2층의 건물로 처마가 매우 가파른 기와지붕의 중국 고대 양식 건축물들이 지방에 산재되어 있다. 타이완에는 또 주로 청대(清代: 1644~1911)에 건축된 사원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절들이 많이 남아 있다.

12. 과학기술: 타이완의 교통부에 DGT(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가 생긴 것은 1943년이다. 1996년에 DGT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통신주파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DGT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기업인 청화텔레콤의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1999년 12월에 위성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1997년 신규 셀룰러 및 무선호출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청화텔레콤(CHT)은 국가 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청화텔레콤(CHT)은 거의 대부분의 로컬회선을 디지털화하였고, 83만

3000 디지털 중계 회선을 구축하여 장거리, 무선호출, 이동통신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청화텔레콤(CHT)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잇는 국제 광섬유 케이블을 구축하고 있고, 셀룰러 전화서비스는 1997년 총 8개의 신규 셀룰러 사업자가 생겨 청화텔레콤(CHT)의 독점체제가 종료되었다. 신규 서비스업자는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파이스톤, 케지텔레콤, 모빌타이 등이 있으며, 1999년 10월 현재 가입자는 1200만 명이다.

2006년 기준 인터넷 서비스는 100여 개의 정보 서비스 업체가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이넷과 시드넷이 고객의 90%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위성통신은 농촌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방송사업자는 1968년 설립된 차이나 텔레비전(CTV), 차이니즈 텔레비전시스템(CTS)과 타이완은행의 소유인 타이완 텔레비전 엔터프라이즈(TTV)가 있다. 교통통신부(MOTC)는 통신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 우리나라와 관계: 1948년 8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의 총통 장제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1966년 대통령 박정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등 수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1992년 8월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후 단교하였다. 1993년 비공식 관계

를 설정한 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상주하게 되었다.

2004년 9월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0년의 대한(對韓) 수출 39억 800만 달러, 수입 89억 8800만 달러로부터 2006년의 수출 92억 8700만달러, 수입 129억 9600만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교역 규모는 서로에게 5대 교역국의 위상을 가져다 주었다.

타이완의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 사무용기기, 컴퓨터 보조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음극선관 등이다. 한국과 타이완은 경제발전단계가 상호 유사하여 양자간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재지 거류중 소지자 기준으로 약 3,000명의 한국인 교민이 있으며, 이 중에서 유학생 1,410여 명, 영주교민 약 700명 등이다.

14.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타이완의 대한관계 (두산백과)

IV. 연수 내용

□ 첫날(11월11일) 연수 내용(한국→ 대만 타이페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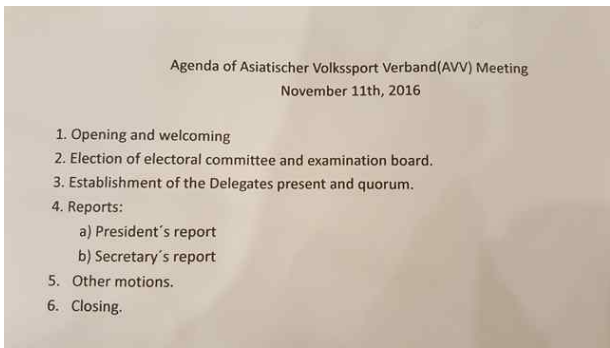
○ IVV-ASIA(아시아시민스포츠연맹) 총회 참석

• 저를 포함해서 IVV 회장과 사무국장과 IVV-ASIA 회장국인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 열림

• 재정보고 및 201년 열릴 예정인 4회 아시안피드 개최지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트지역으로 선정 등

• IVV 임원들에게 준비한 순천시 심벌 등을 나누면서 순천시와 순천만 ECO국제걷기대회 홍보 및 2021년 올림피아드 유치와 관련해서 담소 나눔

• 사진자료

	
총회 시작 전 한국임원들과 IVV 회장 (가운데 좌측), 사무국장과 인사	총회 참석 패스포드
	
총회 순서지	총회에 참석한 대만과 일본대표



총회 전경



총회에 참석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표



대만 회장에게 주는 IVV회장의 감사패



IVV회장에게 주는 대만회장의 감사패



한국회장에게 주는 대만회장의 감사패

2016/11/22 IVV-Asia President, Mitsumasa Miyashita

Minutes of 5th General Assembly of Asian Confederation of Popular Sports (IVV-ASIA)

1. On November 11th, 2016, the delegates from all the three member countries and a direct club gathered in Taipei, Taiwan. All the delegates welcomed IVV-president and Vice-president as supervisors.
2. After the opening address of IVV-ASIA Vice-president Chang-Da Ho(Chinese Taipei Alpine Association), IVV-President Colantonio gave greeting speech to the IVV-ASIA Delegates.
3. Asian Congress of Delegates was established. Then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IVV-ASIA-President Miyashita took the chair.
4. The financial report was presented by Secretary Kawauchi and approved by the Congress.
5. Mr. Miyashita proposed to elect a liaison officer of IVV-ASIA in order to increase the member countries of IVV in South East Asia and Mr. Fujimoto T of Japan was elected.
6. It was decided that the 4th Asianpiad 2018 will be held in Jogjakarta, Indonesia.
7. The "Ginseng of Vladivostok, Russia was recommended as a direct member club of IVV-ASIA, and approved in the condition that "Ginseng" club is accepted as a direct member club of IVV. After the congress, the "Ginseng" club was approved as already a direct member club of IVV.

총회 결과 리포트



IVV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순천시 심벌전달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순천시 심벌 전달

○ 전야 페레이드 및 국제 친교의 밤 행사

- 전야 행사로 타이페이엑스포공원에서 충회호텔까지 퍼레이드 실시
- 20여개국에서 온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국제 친교의 밤 행사 참석
- 사진 자료



대만 타이페이 도로 모습



퍼레이드 출발지인 타이페이엑스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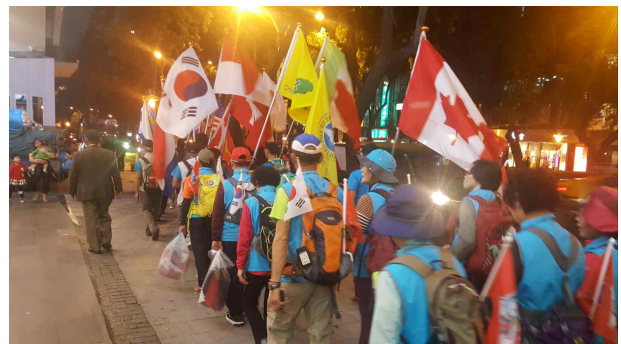
퍼레이드 전 사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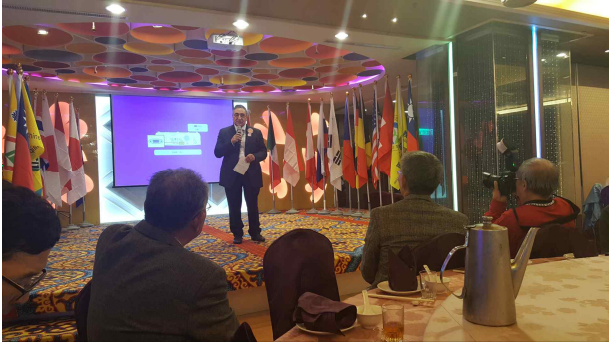
퍼레이드 모습



퍼레이드 모습



퍼레이드 모습



국제친선의밤에 참가한 외국 참가자들

국제 친선의 밤에 참가한 한국참가자



국제 친선의 밤에 참가한 한국참가자

국제친선밤에 공연하는 러시참가자



국제친선밤에 아리랑 부르는 한국참가자

국제친선의밤에 참가한 외국 참가자들

□ 둘째 날(11월12일) 연수 내용(아시안피아드 첫날 걷기 참석)

○ 아시안피아드 첫날 걷기 참가

- 제 3회 아시안피아드대회가 관두소학교에서 열림
- 옷, 안경, 신발 등 걷기 용품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함
- 10km 걷기 참가- 타이페이시장이 참가해 축하와 시작 타지를 함
- 행사장에서 만난 IVV관계자들과 대만,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외국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한국참가자 전원에게 시의회 공식 기념품인 의회 스카프를 매어주면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를 홍보
- 완주자에게 물과 두유, 빵 등 음식이 박스를 지급
- 사진 자료



아시안피아드가 열리는 관두소학교 입구



아시안피아드 걷기 일정표



출발전 기념 행사에 참가중인 참가자들



걷기에 앞서 사전 몸풀기 운동



걷기관련 상품 판매부스



걷기관련 단체에서 준비한 판매부스



걷기관련 상품 판매부스



걷기관련 단체에서 준비한 판매부스



걷기대회에 앞선 기념 행사



기념 공연-사자춤



타이페이 시장이 출발 타진하는 모습



출발하는 참가자들



30Km 참가하는 한국 참가자들



러시아, 대만, 한국 참가자들



20Km 걸기를 시작하는 한국참가자들



IVV세계회장에서 의회 기념 전달하면서 홍보



IVV아시아회장에서 의회 기념 전달, 홍보



홍보를 위해 가져간 의회 기념 스카프



IVV사무국장에게 스카프 전달하면서 홍보



IVV-ASIA사무국장에게 스카프 전달,홍보



IVV아시아 이사 스카프 전달, 홍보



일본참가자에게 스카프 전달하면서 홍보



대만참가자에게 스카프 전달하면서 홍보



스위스 아디에게 스카프 전달. 홍보



스위스 하인즈에게 스카프 전달, 홍보



대만 패기에게 스카프 전달하면서 홍보



한국 참가자들에게 스카프 전달하면서 홍보





시내를 걷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



잘 정리된 코스표시판



나무 이름과 내용 알수 있는 알림판



최고령(92세) 참가자



아이들도 즐겁게 걷기대회에 참가



대회 사진사에게 홍보스카프 전달



완주자에게 주는 음식



실용적인 간이 정수기통



한국 참가자들에게 일일 의회 기념 스카프를 달아주면서 순천시와 의회 홍보

□ 세째 날(13일) 연수 내용(아시안피아드 둘째 날 걷기 참석)

○ 아시안피아드 둘째 날 걷기 참가

- 20km 걷기에 참가
- 러시아와 유럽 참가자들이 많으며 대만 참가중에도 가족들끼리 참가자가 많음
- 폐막식에 다양한 국가 참가들이 참가하여 화려한 행사로 마감
- 사진 자료



행사관계자와 네델란드 참가자와 함께



둘째날 대한민국 20km걷기 참가자 c



러시아와 대만 참가자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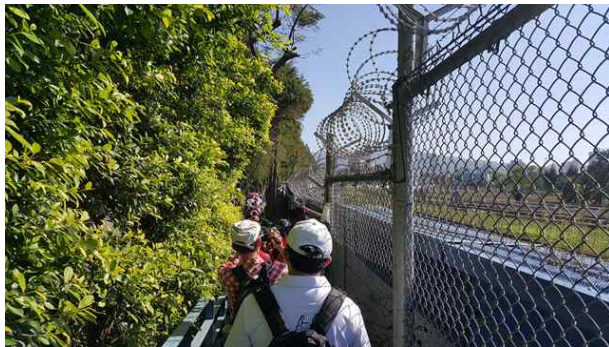
2일째 걷기 대회에 참가자



2일째 대회 출발



마라톤 매니아인 대만 참가자와 함께



철도 옆을 걷고 있는 모습



어린이 놀이 시설 공원에서 휴식



걸기에 참가인 대만 가족들과 함께



첫날 걷기 대회에 만난 아이들



서울대회 참가하고 싶다는 대만 아이



20km 걷기 대회를 마치고



폐막식에 참가하는 다양한 참가자들



폐막식에 참가하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



폐막식에 참가하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



폐막식에 참가하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



폐막식에 참가하는 다양 국적의 참가자들

□ 넷째 날(14일) 연수 내용(타이페이시청과 관두공원 방문)

○ 타이페이 시청

- 당초 부시장을 만나기로 했으나 갑자기 일이 생겨 관두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국장과 담당자를 만남
- 순천의 2013년 순천만국제 정원 박람회와 순천만 습지에 가치와 성과를 설명함
- 대만의 관두공원 관리와 연간 행사에 대해 설명을 들음
- 순천만 습지와 관두공원 교류에 대해 협의
- 타이페이시의 문화행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순천시의 연간 문화 행사에 대해 설명함
- 가능하면 타이페이시와 순천시간 생태와 문화 교류하자고 의견 일치
-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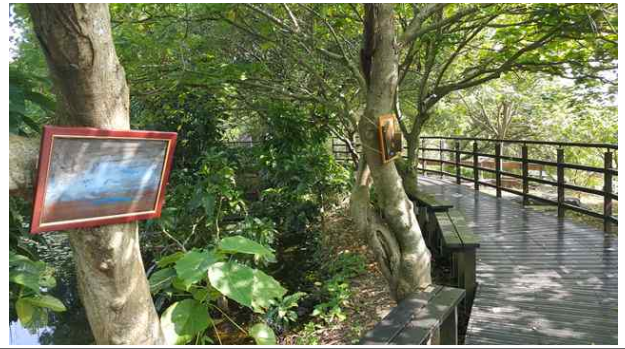
페이시청을 방문해서 습지와 문화 관련자들에게 순천시와 의회를 홍보하고
간담회를 가짐

○ 관두공원 방문, 주변 습지 보호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현장 방문

- 타이페이 대표 습지인 관두공원을 견학
- 명성에 비해 순천만 습지에 비해 작은 공원에 불과
- 도시에 인접해 있었으며 관광객도 많지 않음(년간 20만명)
- 민간위탁되어 있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타이페이시의 지원금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기부금이나 커피숍,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등 재정사업을 추진해 운영재정을 확보하고 있음- 방문시 생태 작가 그림 전시회 개최중
- 관두공원은 주변 마을 중에는 관두공원 관리지역은 아니지만 주변습지를 복원하고 관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지역구의원, 마을 이장, 마을만들기 매니저와 토론.

• 사진 자료

	
관두공원 정문에서	관두공원 안내판
	
관두공원 지도	관두공원 탐방로



연간 계획에 의한 이벤트- 습지 작가 전시회 개최중



관두공원 소리 체험장



관두공원 야외 전망대와 전경



관두공원 어린이 체험장



관두공원 관리건물 내 기념품점



관두공원 관리 건물내 전망대와 전경



관두공원 관리건물 내 커피숍-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



관두공원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음식- 맛있고 건강한 느낌



관두공원 주변 마을에 본 관두공원

습지 마을만들기 마을 이장



습지 마을만들기 매니저와 미팅



사자도습지 마을만들기 지역구 구의원과 미팅



사자도습지 기념관 앞에서 기념사진

사자도습지 마을만들기 기념 조형물에서



사자도습지 마을만들기 전시관에서 토론

사자도습지 마을만들기 마을 전경

□ 연수를 통해 시사점

- 26회 자체 걷기대회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IVV아시안피아드대회라서 자체 걷기대회가 없이 순천에서 개최한 1회 대회에 비해 행사 준비, 운영 등이 좋았음. 특히 대만산악회에서 운영하다보니 조직 등 저변이 탄탄했음.
- 전야 행사로 실시하는 퍼레이드에 각국에서 온 200여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함께 걸어서 좋고 인상적이었음
- 타이페이시장이 참여해서 타징을 할 정도 행정적 관심이나 지원이 많은 느낌을 받았음. 특히 완주자에 주는 음식도 좋아 걷고 난후의 만족감을 느낄수 있어 좋은 느낌을 받음-우리시도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순천시는 걷는 길을 만드는 하드웨어 건설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을 이용해 관광상품화하고, 국제화 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에는 행정적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 타이페이시처럼 시장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회를 마치는 폐막식은 보통은 형식적이고 전야제에 비해 초라한데 비해 타이페이 걷기대회 폐막식은 전야제인 국제친선의 밤보다 성대하게 준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귀국하지 않고 참여해서 좋았음- 이 행사로 인해 외국인 참가자들의 체류 관광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됨 -순천대회에도 도입의 필요 느낌
- 2021년 IVV 올림피아드 대회 유치에 대회 IVV 임원진들과 이

야기 했음- 가능한 순천에서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제1회 아시안피아드 국제걷기 대회를 개최한 순천시로서 순천에 대한 이미지를 호의적이었으며, 2021년 IVV 올림피아드 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국제대회임에도 출발지가 소학교라서 인상적-우리시도 코스를 잘 소화할수 있는 출발지를 선택해야 하기에 그동안의 출발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장대공원과 다른 출발지 변경이 필요하다 사료됨.
- 걷기 코스가 타이페이시를 관통하고 온천지역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게 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았음.
-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것은 들이나 봉화산 둘레길 등 산길 위주 코스 때문으로 사료됨. 따라서 차후 대회는 우리 일구어낸 문화거리나 아랫장, 역전시장, 철도문화마을, 탐매마을 등 도시의 문화역사예술자원을 둘러보면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수 있는 새로운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됨-특히 일본참자가들은 산길을 아주 싫어한 것으로 파악됨
- 순천만ECO국제걷기대회의 시기, 운영조직, 행사준비 등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었음.
- 타이페이시청에서 부시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미팅시간 직전에 큰일이 생겨 못만나고 습지와 관두공원관리 업무 담당국장

과 위탁사업소장, 문화관련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들과 미팅을 하였음-가능한 순천만습지와 관두공원이 생태, 문화에 대해 교류를 하자고 의견을 교환함.

- 타이페이의회와 사전 교류가 없어 방문하지 못한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이후에는 시청보다는 의회방문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에서 더 유익할것으로 판단됨
- 관두공원을 방문한 느낌은 국제적인 명성에 비해 순천만 습지에 비해 작은 공원에 불과하다는 느낌. 위탁해서 관리하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자발적이고
- 타이페이시에서 관두공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주 빈약해서 후원이나 재정 사업을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음. 그러다보니 우리시 순천만습지처럼 사업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이로인해 명성에 비해 관광객수 아주 적었음
- 시 직영이 아니라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지만 나름 생태에 맞는 연간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 관람객은 생태를 아는 관람객이나 생태 체험 교육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음.
- 위탁운영하는 관두공원은 우리시 습지나 국가정원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지원이 약하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음. 따라서 우리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 관리를 전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 등을 이제 고민해야 할때라 생각됨.

- 관두공원은 주변 사자도습지는 관두공원 중점관리지역이 아니지만 마을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습지를 복원, 보호, 관리하고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시에도 적용하면 좋을 사례라 판단됨.
- 관두공원 소장의 권유로 예정에 없는 갑작스런 방문했음에도 마을 이장이나 마을만들기 매니저와 지역구 구의원이 나와 환대해주고 우리시 순천만 습지와 주변 마을과 관련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어 감사했음.

2017. 1.

제출자 : 순천시의회 의원 허유인 (인)